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탄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성탄감사저녁예배

오늘 저녁7시에 성탄감사예배가 있습니다.

3. 송구영신예배

12월31일 저녁 7시에 송구영신예배가 있습니다.

4. 진저브레드 하우스 (Ginger Bread House)

점심식사 후에 진저브레드 하우스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5. 한국학교 후원 바자회

한국학교후원 바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 신년특별새벽기도회

1월10일(화)~14일(토)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7. Stop Hunger

1월 7일 Oakhurst UMC에서 있습니다.

8. 12월~1월 행사안내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저녁7시)

1월1일: 신년예배, 1월2일(월)신년산행(스노우파크): 오전9시 교회 출발

1월3일~4일: 목회자 신년 기도원, 1월6일: Youth & Youngadult 스키캠프

1월7일: Stop Hunger (Oakhurst UMC), 1월8일: 교인총회, 신년하례식

1월10일~14일: 신년새벽기도회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2월25일	임경희 권사	홍윤기 권사
01월01일	윤문섭 장로	임경희 권사
01월08일	최미란 집사	윤문섭 장로
01월15일	최승희 집사	최미란 집사
1월안내	김현숙 김은정	1월 총불점화
		최미란 최승희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성탄감사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소박함과 낮아지심이라는 문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는 첫 세상 나들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소박함은 파격적인 복음 선포와 함께 순교라는 고통이 시간을 넘어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라는 기억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박함이 모두에게 익숙한 화려함으로 바뀌는 순간, 하지만 성탄의 기억은 왜곡되는 현실에 우리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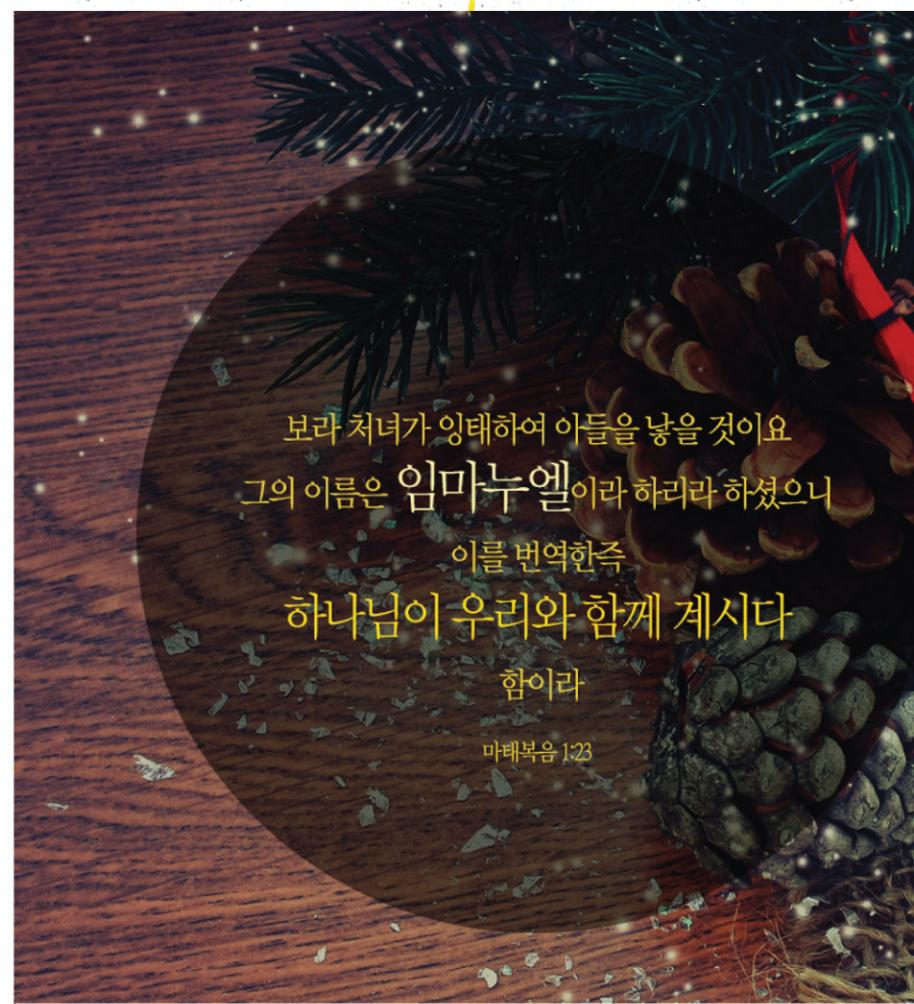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은 소비와 물질의 시간으로 전락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인사, “Merry Christmas”는 “Happy Holiday”라는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를 것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려는 순간, 성탄절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길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한 사건이 교차했습니다. 한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면길을 분주함에도 다녀온 이유는 긴 시간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했던 한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 장례예식이 진행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나 마지막때, 곧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순간 죽음을 목격하며 든 생각은 이 두 진리,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의미를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이 세상 사는 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왕 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기왕 목사로 사는거, 목사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그리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습니다.

좋은날입니다. 기쁜날입니다. 좋고 기쁜 것은 성탄 분위기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순간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거 헌신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후레스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예수님의 제자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115장 (통115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임경희	권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홍윤기	권사	눅 2:8-20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헌신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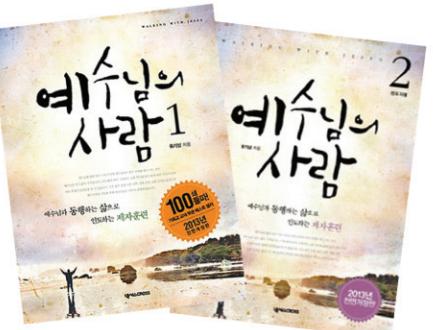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125장 (통125장)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창세기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교회력설교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 후레즈노 교회 주종사역을 위해
 - 김덕수 목사를 위해
 - Rev. Debra Brady 감리사와 Bishop Minerva G. Carcaño를 위해
- 12월 생일자: 장영심 (1/3) 최승희, 임동재 (1/6) 김수현 (1/22) 안미나(1/25)
최주리아(1/26) 베제임스 (1/27) 김규현 최지태 (1/30)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복음(福音), 당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_이사야 43:11

1월 행사안내

- 1월1일: 신년예배, 1월2일(월)신년산행(스노우파크): 오전9시 교회 출발
 1월3일-4일: 목회자 신년 기도원, 1월6일: Youth \$ Youngadult 스키캠프
 1월7일: Stop Hunger (Oakhurst UMC), 1월8일: 교인총회, 신년하례식
 1월10일-14일: 신년새벽기도회

지난주 현금 통계

주일현금	김혜진 엄선영 윤문섭 임경희 이하늘 임수호 최승희 최미란
감사현금	구자홍 구경숙 김악인 정재운 정제니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이수경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1,480.00